박충의 히든스토리

긴급수배 오토바이 절도범 (2)

정말이지 미치고 펄쩍 뛸 일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기자회견 테입을 공수하라 했던 부장의 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경찰 오토바이를 훔쳐(?)타고온 부하를 두어서 특종의 행복은 잠깐! 그 시간부터 나의 머리는 복잡을 지나 쥐가 나기 시작 했다. 그 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MBC K부장과 KBS의 S부장이 연달아 전화를 걸어 왔다. 윗 사람에게 몹시 깨졌다는 이야기다. 방송국이 3개뿐이던 시절 우리가 특종을 하여 상대 방송의 부장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쾌감,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깐! 보도국장이 보잔다. 국장 방에 가니 시경에 K경감이 앉아 있다. 일어나며 박 선배 특종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일이 좀 복잡하게 될것 같다고 한다.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경찰관을 중징계에 처한다고 하니 동료 경찰관들이 들고일어나 범인을 꼭 잡아서 처벌 해야 한다고 방방 뛴단다. 어떻게 내 부하를 순순히 내 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아까 K경감의 전화를 받고 우리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그런일이 없다고 하더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 김 찬모기자를 불러 일본 가고시마에 삼성야구단 전지훈련장으로 취재를 보냈다. 억지로 여권을 들려서 공항으로 보냈는데 속으로 조마조마하다. 혹시 그동안에 신원이 밝혀져 공항에서 출국 금지 되는게 아닌가해서... 그 후 3일간 경찰과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경찰이 김 찬모기자의 신원을 밝혀내고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하고... 우리는 김 찬모 기자 외국출장중이라 하고... 경찰에서는 우선 오토바이라도 돌려달라하고... 우리는 본적도 없다하고.. 나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고... 일요일 아침 딴 때 같으면 느긋한 늦잠을 즐겼을텐데... 그 날 교회에서 정말 난생 처음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월요일 오후... 한가한 시간이라 부원들이 취재해온 테입을 점검할 때 눈이 번쩍 뜨이는 장면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민주노총이 불법이던 시절이라 민주노총을 합법화 시키라고 금속노조 화물운송노조 지하철 철도노조들이 파업하고 매일 데모를 하던 시절인데 S기자가 찍어온 데모취재 테입안에 전경하나가 교묘하게 취재하는 사진기자를 곤봉으로 패는것이 2컷이 찍힌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는 사진기자나 취재기자들이 경찰에게 두들겨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취재한 S기자를 불러서 취재경 위를 물어보니 최루탄이 터지는 속에 방독면을 쓰고 찍어서 정작 본인은 패는것이 찍힌줄도 모르고 있었단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주신 것이다. 快刀亂麻 란 이럴때 쓰는 말인가? 우선 시경의 K경감을 불러 테입을 보여줬다. 아무말 없이 얼굴이 벌게서 우선 자기가 경찰을 대신해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테입을 복사 해 달란다. 테입을 복사 해 주었다. 시경국장이 사과를 왔다. 시경국장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리고 오토바이는 훔친게 아니고 잠시 빌린 것이라고... 시경국장은 시원스럽게 대답한다. 알겠다고... 그 후 경찰이 취재기자를 폭행하는 일이 없어졌고... 기자가 경찰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야기가 없어졌다. 먼 옛날 20년전에 있었던 일이다.

사 | 우 | 동 | 정

강선모 사우는 3월13일 TJB 대전방송 사장으로 취임했다. 강사우는 본사 재직시 교양국장, 아트텍사장을 역임했다.

김동운 사우는 지난해 말부터 대구교통방송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김사우는 공모를 통해 선임됐다.

유정현 사우는 지난 2월부터 MBN 주말뉴스 8 앵커로 활동중이다. 유사우는 패널로 방송에 출연하다가 처음으로 메인 뉴스 앵커를 맡았다.

윤종덕 사우는 지난해 말부터 주식회사 소리자바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윤사우는 이회사에서 TV 영상제작물 자막방송 사업을 총괄하고있다.

유협 사우는 지난달 SBS 골프채널 캐스트로 복귀했다. 퇴직 후 골프장 CEO를 거쳐 4년만에 방송으로 돌아온 유사우는 챔피언스투어를 전담한다.

조재옥 사우는 오는 7월에 개막하는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주관방송사 관련 업무를 맡아 바쁘게 활동중이다. 조사우는 현재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

조희수 사우는 지난달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 SBS 시청자위원으로 선임됐다. 현재 서울 학부모 참소리단 대표와 중앙법사랑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사우는 ANN로 재직했다.

하금열 열사우는 지난 3월 SK C&C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하사우는 대통령실장 때 미루어 놓은 업무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며 최근에는 김포로 이사를 했다.

기상학에서는 북반구의 봄을 3월,4월,5월 석달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 계절마트(?)의 유통기간을 믿고 긴 봄을 찾는 고객은 없을 것이다. 봄인가 하면 어느새 여름이니 계절의 순환고리가 단단히 탈이난 것 같다. 사실 봄은 예부터 찰라의 순간에 지나가는 계절이었다. 그래서 한바탕의 봄꿈처럼 부귀영화가 덧없이 사라진 一場春夢 짧은 인생의 허무함을 아쉬워하는 것인가 보다. "형씨 백세까지 봄맞이 하는 거 원치 않고 부귀영화 누리는 봄꿈 한 번 꿨으면 여한이 없겠소" "춘곤증 즐기시다 보면 기회가 올 겁니다. 사우님들 짧은 봄 지나가기 전 새봄의 氣 흠뻑받아 靑春이 되십시오. 어느해 새봄보다 활짝 꽃이 핀 스무다섯살 왕성한 SBS 처럼..

〈협찬금 내신 분〉

이웅모 (100만원)

김국은 (30만원)

하병호 (30만원)

윤영묵 (30만원)

이성규 (50만원)

양문규 (20만원)

서강덕 (30만원)

조재옥 (30만원)

SBS 사우회보
www.sbssau.co.kr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5년 4월 1일 제34호

발행처 사단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김수웅 편집인 박동주 주소 150-8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605호(태양빌딩)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새봄을 품듯..

2015년도 정기총회 성료

SBS 사우회 2015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서는 2014년도 수지결산 승인과 2015년 예산 승인 등의 의안을 차례로 처리하고 SBS 사우회 500명 사우시대 일심동체 결의를 담아 새봄의 도약을 다짐했다. 김수웅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기 2년차를 맞아 SBS 사우회가 더욱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고 사우들의 재능기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사를 대표해 총회에 참관한 방송지원본부 박종필 국장은 불투명한 광고시장 상황 속에서도 SBS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활기를 띄고 콘텐츠 수출 등 다양한 수익극대화로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본사현황을 소상하게 들려주었다. 이 날 총회에 참석한 50여명의 사우들은 인근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새봄처럼 화사한 얘기의 꽃을 피웠다.

사우회 새가족이 늘어난다

올해 SBS 사우회에 사우 가입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퇴직 해당자는 57년생으로 본사 13명 자회사 11명 등 모두 24명이다. 이 가운데 이미 지난 달 말까지 10명이 퇴직을 해 사우회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 13명이 정년퇴직을 한다. 올해 퇴직할 사우는 아래와 같다.

박성규(R기술) 남달구(보도) 김해근(경영) 안창균(아카이브) 이선용(윤리) 김호남(시설) 정철민(인프라) 이기석(ERP) 최낙현(제작) 김백영(인프라) 백광제(광고) 원충호(인프라) 박임실(미술) 이재모(영상) 권영화(기술) 여인학(영상) 조도진(중계) 박용석(미술본) 이흥철(미술부) 이명길(영상) 박영철(영상) 김홍일(미술) 이상원(기술)

니 심 나 심

– 2015 사우회 정기총회 성료. 뜨거운 참가열기에 비례하는 풍성한 예산 승인으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라고 답하는 그날 까지

– 새식구 늘어나는 사우회, '아! 1년만 젊었으면' 정년 데드라인 야속하시겠지만 사우회 막내둥이로 사랑독차지하는 맛, 별미요

– SBS맨 대잇는 홍보수석, 또 SBS야! 볼멘소리 하지마시고 반드시 목동에서 내려 청와대행 환승버스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 새봄 기지개펴는 동호회, 야외활동 금족령 풀려난 동호회, 여기는 야호! 저기는 굿샷! 사우들의 우애다지는 새봄의 하모니 일쎄

춘계 바둑대회 2연승 노린다

방송3사 사우회 춘계 바둑 대회가 오는 23일 서울 정동 MBC 사우회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첫 대회 이후 6개월 만에 방송3사 사우회 고수들의 대국을 펼치는 이번 춘계 바둑대회는 MBC 사우회가 주관한다. 지난해 첫 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SBS 사우회는 10월에 추계 바둑대회를 개최한다.

'5월 11일은 봄나들이데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민을 풀어 주세요' 사우회는 봄철 야유회 일정을 5월 11일로 정하고 가는 곳을 사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기로 했다. 사우회는 지난해와 같이 사우 모두가 공감하는 곳, 많은 사우들이 참석 할 수 있는 이동거리가 짧은 곳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사우회는 이에 부합하는 장소를 추천한 사우에게는 야유회 당일 특별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야유회 후보지 추천은 이 달 말까지 사우회 홈페이지와 사무처에 제안하면 된다.

파격 편성으로 승부수

SBS 봄철 프로그램 개편 화제

SBS는 파격 편성으로 봄철 프로그램 개편의 승부수를 던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말 프라임타임의 대변화다. 토, 일요일 밤 8시대 주말 드라마 대신 건강하고 유쾌한 가족프로그램을 배치한 편성이다. 주말 안방극장을 점령한 프로그램은 설 연휴때 파일럿으로 방송돼 화제를 모았던 〈아빠를 부탁해〉와 공감 유머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들 개편 프로그램이 첫 방송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와 SBS가 국민들의 TV시청 패턴을 다시 한 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SBS맨의 대를 잇는 청와대 홍보수석

김성우 사우

SBS는 청와대 홍보수석 사관학교인가? SBS 기획본부장 김성우 사우가 지난 2월27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 김성우 사우는 박근혜 정부 초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된 이남기 사우의 뒤를 이어 청와대의 입이 됐다. 김사우는 SBS 재직시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거치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언론계에서 폭 넓은 인맥을 쌓았다. 이에 앞서 김사우는 대통령 사회문화 특별보좌관으로 전격 발탁된 바있다.

SBS社友漫評

사우회의 봄 · 가을 대박을 준비하는 계절

봄바람 난 동호회

사우회 8개 동호회가 새봄의 기지개를 켜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골프회는 지난 2월말 시범경기에 이어 3월25일 블루원 용인CC에서 첫 라운딩을 가졌다. 문화예술회도 3월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중년부부의 권태기 극복을 다룬 프랑스 영화 '파리폴리' 감상을 시작으로 이 달에는 봄나들이를 겸해 야외조각공원 작품을 감상할 계획이다. 요산요수회는 3월28일 보라매공원에서 새봄의 정취를 느끼며 가벼운 트레킹을 가진데 이어 오는 5월 14일 대마도 트레킹을 준비하고 있다.

바둑동호회는 지난 달 23일 신춘 바둑대회를 열고 이 달에 MBC 주최로 열리게 될 방송3사 사우회 바둑대회 실전에 대비했다. 수묵화 동호회는 신춘 분위기에 맞게 매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고 음악감상 동호회는 3월 24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봄을 주제로한 클래식 명곡을 들으며 새봄을 만끽했다. 한편 사우회는 김재백 사우를 골프회 회장으로, 김광진 사우를 문화예술회 총무로 각각 선임했다.

가자!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SBS 사우회 사우들이 오는 7월 3일 광주에서 개막되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방송 현장 매니저로 참여한다. SBS 사우회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SBS A&T와 협의를 통해 방송현장 매니저로 선발된 사우는 SBS 스포츠 국장 출신 정건일 사우 등 16명이다. 세계 170개국 2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15일간 스포츠 축제를 펼치는 이번 대회를 통해 SBS 사우들의 방송재능이 지난해 인천아시안 게임에 이어 또 한번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時論

아빠! 술은 뭘루?

손석기 부회장

권투 중계 방송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지금 중계하는 사람 이름이 뭐야? 무식해! 나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키는 교수님인데 내 말 그자에게 꼭 전해! 바지 까랭이가 두개니까 트렁크가 뭡니까 트렁크스지!" 위의 경우 자신은 높히고 남을 낮추어 말하고 기본 예의가 없고 우리말 사용은 멋대로이다. '가르키다' 와 '가르치다'를 언어 습관상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문화부장관 자택을 방문해 인터뷰 했을 때 "요즘 잘못 쓰고 있는 언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인들이 호칭 하는겁니다. 아이들도 아빠요, 아내도 아빠입니다. 저는 이런 것은 반드시 임기 중에 시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 장관 부인께서 정성껏 다과를 차려 주시며 묻는다 "아빠! 술은 뭘루 드릴까요?" 70년대는 여대생이 남자 선배를 '형'이라고 불렀고 80년대 이후 방송에서조차 남편을 '아빠'라고 말하고, 요즘에는 드라마와 토크 프로그램에서 오빠로 호칭하고 있으니 오빠도 오빠요, 남편도 오빠이다.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소감을 말한다. "이렇게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 드리고요, 제작진에게도 너무너무 감사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부모님, 언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팀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부정적 의미의 '너무'가 '아주, 매우'의 의미인 긍정적 표현을 강조하는 말로 너무 많이 사용된 예이다. 요즘 방송을 보면 지나친 비속어와 공격적인 비하 발언, 심지어 욕설에 가까운 말까지 심각한 수준이다.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가 '언어 관련 심의 강화'를 내세울 만큼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들까지 그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방송 언어 특별위원회가 방송언어 실태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원인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참으로 할 일이 많다.

▶ 민대식 사우가 담은 매화가 절정인 광양의 봄

◆〈이 사우가 사는 법〉 성준호 사우

아직 내 인생 무대 디자인은 끝나지 않았다

"전시부스장의 색깔은 봄 냄새가 나도록 하고, 무대장식물은 은은하게 꾸미도록 하죠"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부근 사무실을 찾았을 때 성준호 사우는 막 기획회의를 끝내는 중이었다. 회의실 벽면에 세워놓은 여러장의 무대셋트 디자인 시안이 눈길을 끌었다. 직원 10여명이 근무하기에 쾌적한 공간이었다. 〈우리에스앤피〉라는 상호 디자인도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언제 이 회사를 차렸느냐는 질문에 " 써 먹을 건 배운 도둑질 밖에 없잖아요, 월드컵 기반으면 잘 될 것 같아 2002년에 문 열었습니다" 성준호 사우는 TV 개국 당시 TV제작국 미술부에 입사해 양평동 스튜디오에서 미술셋트 업무를 맡다가 옮겨간 케이블TV에서 마케팅 분야에 눈을 뜨게 되어 방송미술과 무대 전시부스, 옥외광고, 스포츠행사를 접목시킨 관련 회사를 설립했다. "매출은 그리 크지 않지만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 친정 SBS에서 근무한 경험이 시너지효과가 된거죠,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쟁사가가 많이 생겨 수주하기가 어려워 전쟁을 하고 있죠" 올해 13년째가 되는 성준호 사우의 사업은 업계에서 알아줄 정도 라고 한다. 세계명차 전시회를 비롯해 FA컵 축구대회, 코오롱 한국오픈 등 크고작은 골프대회운영. 최근에는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감독일까지 폭넓게 사업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규모가 작지않은 사업을 하면서도 요산요수 동호회 총무일까지 하는 성준호 사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사우들이 함께 어울려 좋은 곳 걸으며 건강을 챙기는 것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일이예요. 저도 건강해야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확장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꿈을 꾸고있다. 이 꿈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면서 선후배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에둘러 표현했다. "성사장 친정집에서 많이 청겨주어서 좋겠다. 동종업자들에게 오해 받는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습니다." 성준호 사우는 친정에 자주 오는 딸 반갑기도 하고 귀찮은 친정 어머니의 양가감정을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성준호, 그는 철원이 고향이다. 고향을 너무 사랑하는 사나이다. 벌써 두 번에 걸쳐 사우회 사우들을 한탄강 트레킹 코스로 초청해 입맛이 길들여진 철원쌀을 선물로 나누어주기도 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다. 성준호 사우는 사무실을 떠나는 나에게 봉투를 건네 주었다. 김영란법 뉴스가 엄청나오는 시기에... 봉투속에는 그의 비지니스 정신이 끝까지 살아 있었다. 사우들이 각종 전시회나 스포츠 프로모션 등이 당장 필요할 때 당황하지말고 우리에스앤피 긴급전화 592-7167번을 알려 달라는 홍보물이었다.

◇경조사

결 혼

이종한 장남(1/10) 박희재 차녀(3/7)
서강덕 장남(1/24) 정영철 장녀(3/7)
조재옥 장남 (2/27) 정상일 장녀(3/14)
김광석 장남(2/27) 이웅모 장남(3/14)
박진석 장남 (3/7) 박호종 장남(3/28)

부 음

이성규 모친상 (1/16) 이웅모 모친상 (2/11)
하병호 부친상(1/21) 하남신 빙모상(2/19)
양문규 모친상(1/21) 정동천 빙부상 (2/26)
김국은 빙모상(1/22) 이동훈 모친상(3/6)
김경호 빙모상 (1/22) 이기진 부친상(3/9)
엄광석 모친상(1/30) 김태성 모친상(3/24)

◇회비내신분

연회비(1월~3월)

권재홍 김유주 서강덕 신동파 우선균 조병식 김흥덕 김한옥

종신회비(각30만원)

김충환 김해근 박 종 윤영준 이재모 조한일 하남신 이현오 권영화 서득원 신언훈

◇회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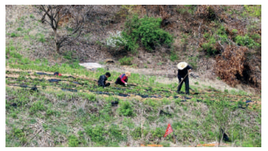
(종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비 : 30,000원 종신회비 : 30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 비 납 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 찬 회 비 1005-001-954097

◆〈고향에 산다〉 민충기

'밀양의 아리랑 봄'



대밭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부드럽다. 어느새 마을 논둑과 밭둑은 앞 다퉈 핀 새순들이 녹색시대를 열고 있다. 돌담너머 옆집 마당의 산수유와 매화는 이제 벚꽃에게 미를 뽐내라고 순서를 넘겼고 목련과 라이락도 봄꽃 퍼레이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보듯이 하도 보라고 애원(?)하길래 고향 밀양으로 내려와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이다. 연어는 3년이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데 나의 회귀본능 자기장은 40년 넘게 걸려 복원이 된 모양이다. 뒷산에 꼬맹이 나무들이 아름드리로 변했으니 고향 떠날 때 담은 풍경은 모두 소나기 내리는 필름이 된 것이다.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마을 뒤 덕태산에 오르면 넓은 들판을 가로 질러 낙동강이 보이는 마을이다. 무엇보다도 서울로 유학을 떠난 후 서리 내린 모습으로 만난 옛 친구들이 푸근하다. 동구밖 툇마루에서 김치 안주로 막걸리를 마시며 세월을 거슬러 간 얘기로 웃어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친구들은 농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텃밭에 푸성귀를 기르는 경작에서 경운기 운전까지 가르쳐주었다. 사실 요즘 시골은 농사는 있어도 농촌은 없는 것 같다. 곧 생활문화가 많이도 달라졌다. 며칠 전 앞집 아지매가 왔다. "里長선거에 누구 찍을 낀기요?" "후보자 가운데 누가 좋습니까?" " 아무래도 閔家를 찍어야 안되겠나." "아지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예" 투표결과 김씨가 민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閔家 집성촌에서 金씨가 里長이 된 것이다. 한때는 閔家들이 동네 일을 모두 결정했고 閔家 아닌 사람들은 閔家들의 결정에 따르기만 했는데 외지인이 들어오고 閔家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생긴 현상이다. 농촌의 씨족 집성촌들은 이렇게 변화됐다. 또 집집마다 차가 참 많다.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 경운기 등 다양하다. 1톤짜리 소형트럭과 승합차는 농산물 운반에 필수적이고 주부들이 읍내 노래교실에 갈 때는 승용차를 타고 간다. 논에 일보러갈 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집집마다 차가 3-4대씩 있다. 이러다 보니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확 줄었다. 비닐하우스 농업이 대세다. 넓은 들에는 비닐하우스로 가득하다. 벼 심고 보리 심던 논에 이제는 온통 비닐하우스다. 이맘때 쯤이면 보리가 파랗게 올라와 넓은 들이 초록 물결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땅이 전부 비닐로 덮혔다. 멀리서 보면 마치 물이 가득한 호수 같은 모습이다. 이곳 하우스에는 지금 딸기가 한창 출하중이고 양파, 고추, 깻잎들이 자라고 있다. 나는 오늘도 논길 따라 밭 둔덕 지나 뚝방 길 따라 걷는다. 올레길 둘레길이 부럽지 않다. 이름 없는 논길을 걷는 맛이 일품이다. 시 한 귀절이 절로 떠오른다. 그대 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그 길은 그대의 꽃길입니다. 오늘도 마음 가는 곳곳마다 꽃길이시기를..... 남의 시를 속삭이다 보면 류자효 선배처럼 시 쓸 날이 오지 않을까? 내년 봄에는 자작시로 사우님들께 밀양의 봄을 전하겠습니다.

◆〈남아공 여행기〉 정승화 사우

희망봉의 파랑새를 찾아서

아프리카 남단 끝은 억수로 멀고 먼 길이었다. 해를 바꿔가며 2년에 걸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다달았으니... 이번 아프리카 여행은 나의 세상견문록에 색다른 기록의 시작이었다. 한나절 머문 경유지 카타르 사막의 모래둔덕에서 해넘이 노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황혼을 음미했고 검은대륙을 지나가는 비행기 창가에서 붉은 구름에 실린 강렬한 해맞이를 하며 뜨거웠던 청춘을 반추했다. "아참, 잠시 개똥철학에 심취한 사이 보름여를 함께한 동행자를 미아로 만들뻔 했구나" 막걸리 왕 박선배,사우회 살림꾼 이처장,사우회 홍보맨 편집장, 꽃보다 오빠 내노라하는 4인방이었다. 2015년 새해 첫날, 케이프타운의 한 여름은 우리를 눈이 시린 파란 하늘로 맞이했다. 겨우내 서울의 잿빛 하늘에 우중충하게 찌든 맘을 한꺼번에 씻겨내는듯 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고속도로변에 펼쳐진 첫 풍경이 우리를 슬프게 했다. 끝없이 펼쳐진 원주민들의 판자촌이었다. 풍요한 자원의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린 이 땅의 슬픈 역사,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의 흔적으로 다가왔다. 아마도 케이프타운의 상징인 테이블마운틴은 눈물의 씨앗을 알고 있을것이다. 먼발치에서 바라본 해발 1087m 테이블마운틴은 마치 식탁보를 덮은 것 처럼 구름에 걸려 있었다. 케이블카에 실려서 당도한 정상은 대형 평상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큰 상위에 막걸리 한통 올려 놓고 마시고 싶다는 박선배의 감탄사를 외면할 수 없어 정상에 자리한 카페에서 포도주로 목을 축이며 구름바다로 파묻히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순간 대자연의 조화에 넋을 잃고 묵언수행자가 되었다. 하산길 사자봉 아래로 펼쳐진 케이프타운의 야경은 낯설은 아프리카로 다가 왔다. 1488년 포르투칼의 항해사 디아스가 풍랑을 피해 희망봉에 첫발을 디딜때 처럼...

희망봉으로 가는 길은 설레었다. 해안가 바위 절벽 〈cape of good hope〉라고 표시된 팻말 앞에서는 희망을 가득 품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바쁘게 인증샷을 날리고 있었다. 희망봉이라는 어감의 기대와 감동보다 삭막함이 먼저 다가왔다. 하기사 서구 열강들에게는 착취의 문을 여는 희망봉. 원주민들에게는 노예사냥터가 되버린 절망봉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이 폭풍의 곶에서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한국산 새우깡이 좋은 걸 어찌 아는지 달려드는 갈매기 떼를 뒤로하며 아굴라스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희망봉이 아프리카 최남단으로 각인되어버린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 아굴라스는 희망봉에서 남동쪽으로 160km 떨어진 대서양과 인도양이 경계를 이루는 위도상 실질적인 아프리카 최남단이다. 아굴라스로 가는 길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은 양떼들의 풍요로운 놀이터였다. 빨간 등대를 따라 다달은 아굴라스 곶, 인도양과 대서양은 거칠게 격투기를 벌이고 있었다. 우린 흥에겨워 추억의 사진첩을 만들었다. 이번 여행길의 전속 사진사(?) 이관형 사우가 만든 사진첩은 앨범 수십개 분량이었다. 아름답고 아찔한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챔프만 픽' 아프리카에도 펭귄이 살고 있음을 입증시킨 볼더스 비치의 펭귄무리 등등 남아공의 대자연을 담아내기에 바빴다. 우리는 케이프타운의 마지막 일정, 꼭 가야할 곳을 가기위해 로벤아일랜드로 가는 뱃길에 올랐다. "피부색, 배경, 종교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한 평생 감옥에서 흑인의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투쟁했던 넬슨 만델라에 고난의 흔적을 만나고 싶었다. 만델라가 18년간 감금된 로벤섬, 한 평 남짓한 감방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갈구하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흑백갈등을 종식시켰지만 남아공의 진정한 승리는 주권이 아니라 경제권을 찾을 때 비로소 매듭의 끈을 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죽기 전에 꼭 가볼만한 세계 여행지 1위로 선정한 케이프타운. 백인이 더 붐비는 아프리카의 작은 유럽 워터프론터에 마지막 밤을 달래는 노천 카페의 테이블은 보름간의 뒷얘기를 나누며 포도주병이 쌓여갔다. 아! 포도주, 남아프리카 싱그러운 햇살이 빚어낸 스텔렌 보쉬 지역 와이너리에서 마신 포도주 맛, 잊을 수 없다. 사우회 선후배 사인방은 이번 남아공여행에 커플티를 입고 함께 동행하지 못한 마누라에게 미안함을 공유했고 '현재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영화 〈꾸뻬씨의 행복여행〉의 명대사를 떠올렸다. 남아공 여행이후 박선배는 포도주의 중독을 치유하기위해 로마법에 따라 막걸리를 고수 하고 있다. 박 편집장은 비주류의 족쇄를 풀고 술꾼이 되었다. 이처장은 꿩 대신 닭이라며 포도쥬스까지 챙긴다. 나는 아직도 마트에서 남아공산 포도주를 찾고 있다. 보름동안 4인방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데리고다닌 소피아 여사에게 감사드린다.